

고유가 시대 ... '주유소의 생존 전략'

기름만 빼고 뺄건 다 뺀다



29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헬프 주유소에서 자가용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직접 주유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연초부터 기름값이 다시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광주·전남 주유소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름만 빼고 뺄 수 있는 거품은 모두 걷어내 가격을 최소화해야 주유소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알바생·경품 없애 비용 절감

파격 할인 셀프 주유소 등장

"기름값 싸다" 고객들 장사진

반디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1천290원. 광주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1천422원)보다 132원이나 저렴하다. 여기에 각종 제휴카드를 이용할 경우 리터당 최대 100원까지 더 할인받을 수 있다.

비결은 각종 사은품과 판촉비용을 없애고 마진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와는 다르게 화장지나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기름값이 오르더라도 가격 조정을 최대한 늦춘다. 고객들에게 다른 곳보다 훨씬 싼 주유소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반디 주유소는 경기불황에도 하루 평균 1천500~2천대 자동차가 찾는 '대박' 주유소가 됐다.

고유가 속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다. 셀프 주유소의 기름값은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40~60원정도 저렴하다. 만약 할인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리터당 1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지역에 처음으로 셀프 주유소를 선보인 광산구 신창동헬프 주유소(면적 991.7㎡, 셀프 주유기 5대)의 경우 인건비를 줄이고, 사은품과 무료 서비스를 없애는 '3무 전략'으로 리터당 휘발유 1천372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주유소는 최소 10명의 인력이 있어야 주, 야, 심야 3교대 근무할 수 있는데도, 이를 3명으로 줄여 인건비를 80% 정도 절감했다. 매달 70만~80만원까지 쓰던 판촉비를 없앴고, 화장지나 생수 같은 사은품은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

이 주유소 대표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름을 제공하기 위해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낀 결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무척 좋아졌다"고 말했다.

유류소비 4년만에 줄었다

고유가·불황 탓 작년 소비량 4.3% ↓

휘발유는 연말 '가수요'로 소폭 증가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훨씬 웃도는 초고유가에 세계 동반 경기침체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우리나라의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은 7억6천72만4천 배럴로 잠정 집계돼 2007년(7억9천494만5천 배럴)보다 4.3% 가량 줄어들었다.

에 비해 1천만 배럴 이상 감소한 뒤 2005~2007년에는 3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소비량은 4년만에 감소한 것일 뿐 아니라 2005년 소비량(7억6천108만 배럴)보다도 적은 것이다.

단일 품목으로 가장 소비가 많은 나프타의 경우 지난해 소비량이 3억1천145만5천 배럴로, 2007년(3억1천

685만8천 배럴)에 비해 5천400만 배럴 이상 줄었고 2007년 8천902만8천 배럴이었던 병커유 수요량도 지난해에는 6천676만6천 배럴에 그쳤다.

반면, 휘발유 수요량은 6천293만7천 배럴로 전년(6천250만 배럴)보다 0.7% 늘어났다.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특히 지난해 12월 수요량이 628만2천 배럴에 달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연말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휘발유 수요는 '가수요'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실제 연간 소비량이 늘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석유공사는 보고 있다.

삼성 세계 첫 4Gb D램 개발

50나노급 공정 적용... 업계 최대 용량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0나노급 공정을 적용해 업계 최대 용량의 4기가비트(Giga bit) DDR3 D램을 개발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DDR3 4Gb, 2Gb, 1Gb, 512Mb와 DDR2 1Gb, 512Mb 등 업계에서 가장 많은 50나노 D램 제품군을 확보하게 됐다. 4Gb DDR3 D램은 서버용 16기가비트(Giga Byte) RDIMM, 워크스테이션



과 데스크탑 PC용 8GB UDIMM, 노트북용 8GB SODIMM 등 대용량 모듈 개발에 적용되며, 패키지 작중 기술(DDP: Double Die Package)을 적용하면 32Gb 모듈 개발도 가능하다.

자영업 체감경기 사상 최악

지역 제조업 업황도 크게 위축 전망

광주·전남 기업 조사

지역 기업들의 향후 업황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영업의 체감 경기는 사상 최악이며,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31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통해 기준치 100의 절반에 그쳐 부진이 여전할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전달 대비 업황전망 BSI가 49에서 44로 하락하고 비제조업은 35에서 57로 오를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경기실사지수는 해당 기간 경기가 나빠졌다고 평가한 업체가 긍정적 견해보다 많으면 100을 밑돌고, 지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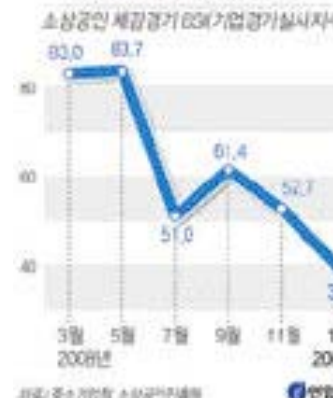
낮을수록 그만큼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뜻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이 광주·전남 등 전국 1천800여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1월 체감경기가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38.7로, 직전 조사 시점인 작년 11월의 52.7에서 14.0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준 최저 기록이었던 2008년 7월의 51.0보다도 12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광주 지역은 38.3으로 전국 평균(38.7)을 밑돌았고, 전남은 44.6을 기록해 전국 평균은 넘어섰으나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3월 예상경기에 대해서는 광주는 87.7, 전남 88.9로 나타나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주·전남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

소상공인 경기지수 추이



도 동반한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내 328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4분기 대비 이달 가계소비심리(소비자 동향조사 지수-CSI)를 조사한 결과 '위축'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전 대비 현재 생활환경 CSI의 경우 69로 작년 4분기(64)보다 5포인트, 6개월 후 생활환경전망 CSI도 81로 4분기(73)보다 8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대변했다.

최재호·정필수기자 lion@kwangju.co.kr

박카스 너마저...

겔포스 등 일반 의약품값 인상 예고



세계적 디스플레이 추세와 달리 국내 생필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박카스 등 인기 일반의약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대 매출 의약품인 동아제약 박카스의 약국 공급가격이 조만간 10%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363원인 박카스의 도매가격이 약 400원선으로 오르게 돼 약국 소매가격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원가상승으로 인한 가격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인상을 검토하

고 있다"면서도 "인상 폭이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연초에 엔고(高)의 영향으로 염색약 비엔크립톤의 공급가격을 5% 올린 바 있다.

보령제약도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인기 제산제인 겔포스(겔)의 공급가를 3월부터 10% 가량 올릴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사제 정로환의 가격도 같은 달부터 15% 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미국계 제약사 와이어스의 종합비타민 센트럼 역시 3월부터 7~8%의 가격인상을 앞두고 있다.

새얼굴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최우선"

최창열 토공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최창열(53)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또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신뢰받

는 기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익산 출신인 최 본부장은 전남대에서 토목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81년 입사 뒤 광주 풍암사업단 개발팀장, 군산사업단장, 지역계획처 지역개발담당 등을 지냈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5년 전통, 광주지역 최대 합격자 배출!! 분원출신 전국수석 (승인명단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강" 전원 서울에서 출강! 주택관리사 "2009년 9월 20일 시험" 대개강 2월 2일. 광주고시학원. 2개월 완성 2월 2일

7.9급 공무원 특강. =無等은 선배 공무원들이 입증하는 전국 유일의 명문학원임을 자부한다!!! =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취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부동산 관련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속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Table with 4 columns: 근린시설/유통, 아파트/빌라, 평택/주택, 공장/토지. Each column lists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속삭이/상가, 근린주택, 공장/토지. 속삭이/상가: 010-5879-0005. 근린주택: 010-2611-5598. 공장/토지: 010-5522-8484.